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지난 40여년간 당신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령도하여오셨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당신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그의 승리적전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원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당신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장하시고 조선로동당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을 령도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0년 6월 8일 메히꼬시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이 중요한 문건은 조선의 북과 남의 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에서 중요한 조치로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신께서 선언을 마련하신 업적과 그가 가지는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당신께서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와 세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이쎬호 필리쁘
2010년 6월 4일 브라하

조선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북과 남이 공동선언을 채택한 력사적인 사변이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인민과 모든 평화호력자들은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수 있다고 확신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신할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선언에 지적된 모든 구상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것을 해놓으셨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측이 선언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많은것을 할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여 북남공동선언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유가노브
2010년 6월 15일 모스크바



공장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평양기호공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향유자로

로 동 법 령 발 포 기 념 일 을 맞 으 며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법령이 발표된지 64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해방후 인민적인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노예로동을 영연히 끝장내고 근로인민대중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법령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조선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고 로동자들을 가혹한 식민지적인 로동조건에서 해방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국가건설의 핵심적부대로서 더욱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읍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주제34 (1945)년 11월 하순 어느날, 평양광산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스병세가 심하게 나는 강방이침지작업장에도 들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노예로동을 영연히 끝장내고 근로인민대중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법령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조선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고 로동자들을 가혹한 식민지적인 로동조건에서 해방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국가건설의 핵심적부대로서 더욱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읍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초보적인 로동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공장과 탄광, 광산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땅을 벗어던지고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노예로동제도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이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밝힌 노예로동의 철폐와 8시간로동제설치, 로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로동법령》을 발표하시였다.
로동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들은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력사적인 로동법령발포!
이는 오랜 세월 온갖 착취와 무권리 속에 수난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해준 커다란 사회적번영이었다.
로동법령이 발표되자 전체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것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였으며 평양과 함흥, 청진과 해주를 비롯한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로동법령을 지지하는 군중시위와 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군중시위와 경축대회가 펼쳐 나신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적인 로동법령을 마련해 주시여 보람찬 로동생활과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 어버이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이렇듯 끊임없는 현시지도의 길에서 로동법령의 조항조항들을 완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35 (1946)년 6월 20일 북조선민주주의인민위원회 제8차회의를 소집하시고 자신께서 몸소 작성하신 로동법령초안을 심의에 붙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로동법령의 민주주의적성격과 기본 내용, 로동법령의 특성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6월 24일 발표된 로동법령을 접대 지지하며 기쁨에 넘쳐 장군님께 편지를 씀니다. ... 오래전부터 애용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우마와 같이 시달려오던 우리들 로동자 및 사무원을 해방하는 위대한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대하여는 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
우리들은 장군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에 적극 참가하여 생산돌격운동을 맹렬히 전개할것을 맹세합니다.
기쁨에 넘치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여 삼가 장군님께 경의를 드리는바입니다.》
로동법령이 발표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생산부문과 사무기 관들에서 로동법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주제35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로동법령의 민주주의적성격과 기본 내용, 로동법령의 특성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땅을 벗어던지고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노예로동제도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이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밝힌 노예로동의 철폐와 8시간로동제설치, 로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로동법령의 민주주의적성격과 기본 내용, 로동법령의 특성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에서 매일 장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땅을 벗어던지고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노예로동제도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이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밝힌 노예로동의 철폐와 8시간로동제설치, 로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선군혁명경도의 나날에

값 높은 평가

몇 해 전 가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새로 건설한 도로를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짧은 시간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군인건설자들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로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이 도로의 그 어느곳에나 력력히 깃들여있었다.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또 하나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이 너무나 대견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도로포장을 회한하게 아주 잘하였다고 거듭 칭찬하시였다.
그이의 값 높은 평가는 내

군인들의 전투정지훈련과 문화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이 혁명적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들리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관심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성의껏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대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음식감들을 다시 차례차례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은 훈련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열기를 제때에 보충할수 있도록 식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할데 대하여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훈련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라 할 때에 찾아오는 인민군대원들의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들모두를 정신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용사들로 키우시려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들이 우리를 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회색의 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긍지와 행복감으로 더욱 부풀어올랐다.
부대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병사들로부터 민형, 만누리 병리우며 그들의 생활을 친언어처럼 돌봐주시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관이 될것은 결의를 다지였다.
인민군대원들을 사랑하는 아들딸들로, 참다운 선군혁명동지로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언어처럼 돌봐주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은 세상에 높이 떨치고 있는것이다.

깊이 관심하신 문제
주제 97 (2008)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찾으시였다.
그의 값 높은 평가는 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을 부대에 모신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세계에 뚫어질 정도로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높이 발휘되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반세계급의식

오늘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는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분노와 적개심, 열적의 기개를 천백배로 폭발시키고있다.
제국주의 반동들과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렬한 립장과 태도는 투철한 반세계급의식의 발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의식을 높여야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으며 혁명에서 원칙을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적들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벌어지고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행동과 경제적봉쇄행동, 사상문화적침투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의 힘을 가리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의 의지에 충당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세계급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반세계급의식이 강한 인민에게 있다.
우리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투철한 반세계급적립장을 지닌 혁명적인민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을 깔없이 추종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급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할수 없다. 총대중시, 권력강화가 당들이 감히 우리 조국땅위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원수들을 써도 없이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림으로써 유혈을 흘리고는 전쟁의 화근을 쏘두려워하며 버려버리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제대미우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에 게 조선사회의 본래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일념을 안고 부근건설을 다그쳤으며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평화전략》에 말려들어 군사력을 약화시킬 때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지와 낫을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사랑 없이 있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허리를 졸라매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였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총대중시, 군사중시, 무력중시, 무력중시, 무력중시, 무력중시의 위력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쳐온 반세계적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을 펼쳐올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없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미제와 총결산을 하고야말 열적의 의지를 안고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적들이 핵공격을 한다고 하여 혁명적 원칙을 버릴 인민도 아니며 원수들의 제제와 봉쇄가 지속된다 하여 사회주의의기에서 물러설 인민은 더욱 아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신념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마운 사회주의의 길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으며 우리 식, 우리의 사회주의생활보다 더 좋은것이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조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이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려는 결연한 립장과 의지를 지니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래를 적국 살려내려고 사투리를 계속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썩어빠진 부르주아생활양식,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기백과 향만에 넘쳐 생활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참모습이다. 오늘 누가 보지않던 사회주의의 조국 통일전쟁을 위하여 깨끗한 립성과 의지를 버치지 않는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피와 살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마다 꽃피나

선구자의 기상 떨치며 총공세의 앞장에서 기세드높이 전진

김책제철련 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기적을 창조하며

동승기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당장전 65톤을 로력적성으로 빛내기 위해 총공세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던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기세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 게 보낸 편지에서 결의한대로 1. 4분기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기세로 보다 질풍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이곳 로동계급은 얼마 전 새로운 강종을 생산해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심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그 모든것을 막고 대담하게 달려붙어 단번 성공으로 새로운 강종을 생산해낸 미더운 김책의 로동계급, 이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그처럼 단단하게 일판을 벌일수 있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한달전,련합기업소와 강철 2지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대고조전투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제철의 강종생산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어려운 생산과제가 때문이었다. 부족되는 철가재들, 완전히 새로 꾸리다시피

해야 할 정련공정... 모두가 생각에 골몰하며 고개를 수그린채 누군가 특별한 《묘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지속되는 무거운 침묵을 깨며 련합기업소당 일꾼이 일어났다.

《은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김책이 일을 치는 해로 되게 하겠다고 선포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한단 말입니까, 심장이 커야 합니다. 대담하게 달려붙어 이번 일을 성사시키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시다.》

당일꾼의 이런 전투적소호에 화답해나선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조직사업이 진행되자 신심에 넘쳐 각자 자기가 맡은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강철 2지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인불발의 의지를 안은 일꾼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공정기사 최명진, 카바이드 작업반 반장 리철동동무들은 거둬들이는 실재에도 주저없이 철가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하여 이 악하게 노력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꾼들도 이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합세하여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 피라는 탐구의 나날에 가슴을 옥죄었던 시험생산의 순간은 그 몇번이였으며 실망의 어두운 그늘을 가시며 혁명적인 노매를 부르던 순간은 또 몇번이였는가. 다른쪽에서는 정련공정을 완전히 새로 꾸리기 위한 팀제전이 벌

어졌다. 책임기사 김경섭동무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갈 때 합마질소리, 경계선들의 북소리로 떠나갈듯 한 일터에서는 용접 불꽃이 세계를 환산했다.

대남비 1작업반원들이 새로운 기구의 제작설치를 위해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며 드레사게 일판을 벌일 때 직장의 일꾼들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각이한 정황을 주면서 여러 차례의 모의시합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조각공, 운전공, 신호수들의 호응이 일치되었으며 공간관계가 비상이 강화되었다.

정작 모든 생산준비가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조작성에로가 앞을 가로막았다. 기존방식대로 쇠물을 주입하는것은 직장의 생산조건에 맞지 않았고 또 귀중한 쇠물을 허실할수도 있

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미 깊이 파악되어있고 손에 익은 기존방식을 뒤집어엎는다는것은 사실 보통의 용감성과 배짱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날 머나먼 중국방문에서 쌓으신 피로도 풀실 사이이런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워야 하는것이 우리 김책의 로동계급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잔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전투를 벌이자!

모두가 이런 드높은 열정안고 새로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을 과감히 벌여냈다. 드디어 쇠물을 받아문

산소전로가 무섭게 용을 쓰기 시작하였다. 총천하는 화광, 세찬 열풍, 눈부시게 휘부러지는 불보라...

은 기업소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3호로의 조각공들이 용해공정을 원만하게 추진시키였으며 조각공, 절단공들은 긴급한 정황속에서도 배심있게 쇠물을 주입하여 마침내 새 강종생산의 돌파구를 열었다.

강원분석결과가 나오자 온 기업소가 환희로 들끓었다. 성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 불변의 충정을 지니고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만만치않은 고해미 강성대국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김책의 로동계급, 이처럼 장한 로동계급이 있어 10월에도 향한 우리의 대전군은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다.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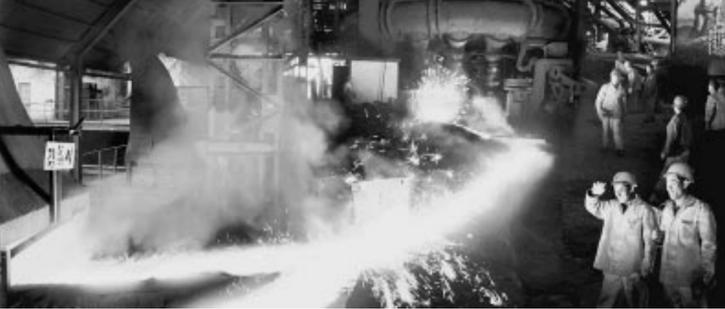
각지에 보내는 철강재는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것이 대고조전공을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 줄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때 현장에 나와있던 련합기업소 부지배인 리만년동무가 손해를 써가며 힘있게 말한다.

《수송은 넘려달라, 이것이 우리 운수부문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배심입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그 결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신심도 좋고 카오도 좋다. 기적소리 높이 울리는 구내기판차들과 드라마 뛰어나는 로동자들의 모습에 10월에도 달리는 김책로동계급의 창조적 열정이 비껴있었다.

구내기판차들은 또다시 자랑들을 달고 철의 도시를 누비간다. 장엄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예극원신의 강령군기를 따라 강성대국으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 로동계급의 역전 기상을.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한달전,련합기업소와 강철 2지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대고조전투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제철의 강종생산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어려운 생산과제가 때문이었다. 부족되는 철가재들, 완전히 새로 꾸리다시피

해야 할 정련공정... 모두가 생각에 골몰하며 고개를 수그린채 누군가 특별한 《묘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지속되는 무거운 침묵을 깨며 련합기업소당 일꾼이 일어났다.

《은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김책이 일을 치는 해로 되게 하겠다고 선포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한단 말입니까, 심장이 커야 합니다. 대담하게 달려붙어 이번 일을 성사시키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시다.》

당일꾼의 이런 전투적소호에 화답해나선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조직사업이 진행되자 신심에 넘쳐 각자 자기가 맡은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강철 2지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인불발의 의지를 안은 일꾼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공정기사 최명진, 카바이드 작업반 반장 리철동동무들은 거둬들이는 실재에도 주저없이 철가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하여 이 악하게 노력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꾼들도 이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합세하여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 피라는 탐구의 나날에 가슴을 옥죄었던 시험생산의 순간은 그 몇번이였으며 실망의 어두운 그늘을 가시며 혁명적인 노매를 부르던 순간은 또 몇번이였는가. 다른쪽에서는 정련공정을 완전히 새로 꾸리기 위한 팀제전이 벌

어졌다. 책임기사 김경섭동무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갈 때 합마질소리, 경계선들의 북소리로 떠나갈듯 한 일터에서는 용접 불꽃이 세계를 환산했다.

대남비 1작업반원들이 새로운 기구의 제작설치를 위해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며 드레사게 일판을 벌일 때 직장의 일꾼들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각이한 정황을 주면서 여러 차례의 모의시합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조각공, 운전공, 신호수들의 호응이 일치되었으며 공간관계가 비상이 강화되었다.

정작 모든 생산준비가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조작성에로가 앞을 가로막았다. 기존방식대로 쇠물을 주입하는것은 직장의 생산조건에 맞지 않았고 또 귀중한 쇠물을 허실할수도 있

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미 깊이 파악되어있고 손에 익은 기존방식을 뒤집어엎는다는것은 사실 보통의 용감성과 배짱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날 머나먼 중국방문에서 쌓으신 피로도 풀실 사이이런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워야 하는것이 우리 김책의 로동계급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잔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전투를 벌이자!

모두가 이런 드높은 열정안고 새로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을 과감히 벌여냈다. 드디어 쇠물을 받아문

산소전로가 무섭게 용을 쓰기 시작하였다. 총천하는 화광, 세찬 열풍, 눈부시게 휘부러지는 불보라...

은 기업소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3호로의 조각공들이 용해공정을 원만하게 추진시키였으며 조각공, 절단공들은 긴급한 정황속에서도 배심있게 쇠물을 주입하여 마침내 새 강종생산의 돌파구를 열었다.

강원분석결과가 나오자 온 기업소가 환희로 들끓었다. 성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 불변의 충정을 지니고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만만치않은 고해미 강성대국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김책의 로동계급, 이처럼 장한 로동계급이 있어 10월에도 향한 우리의 대전군은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다.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각지에 보내는 철강재는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것이 대고조전공을 얼마나 힘있게 떠밀어 줄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때 현장에 나와있던 련합기업소 부지배인 리만년동무가 손해를 써가며 힘있게 말한다.

《수송은 넘려달라, 이것이 우리 운수부문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배심입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그 결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신심도 좋고 카오도 좋다. 기적소리 높이 울리는 구내기판차들과 드라마 뛰어나는 로동자들의 모습에 10월에도 달리는 김책로동계급의 창조적 열정이 비껴있었다.

구내기판차들은 또다시 자랑들을 달고 철의 도시를 누비간다. 장엄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예극원신의 강령군기를 따라 강성대국으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 로동계급의 역전 기상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 직장에서 우리는 직장의 한 일꾼이 보여주는 현연의 시를 보게 되었다.

은 용해공이 현장에서 지은 《생명》이라는 제목의 그 자작시는 련합기업소에서 자작하모임에서도 방송되었다고 한다.

무 기백 《만세!》를 부르던 로동자들과 일꾼들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이 현연의 시에 김책로동계급의 결사판철의 기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나라의 만아들이라는 투철한 자각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간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김책로동계급은 지금 말

로든 위훈장조의 지름길을 열어 놓은 한 로장의 모습, 뜻밖에 조성된 위험을 함부로 막고 강철생산에 이바지한 한 로동자의 모습, 월계획을 끝낸 날 너그레 결사전을 벌이고있다.

많은 김책을 나라는 생명선으로 불러주며 대고조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고 로동계급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생명으로 간주하며 결사적으로 지켜가는 여기에 당과 인민의 현연이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광활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자랑찬 시대상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대고조시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인격은 그가 쌓은 실적의 높이에 따른다. 완강한 실천투쟁으로 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전직의 기적속에 남아있는 사람, 시대가 부르는 위훈자가 되자!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산림보호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보호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한그루의 나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시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귀중한 밑천의 하나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산림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은 나라를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산림보호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이 사업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림보호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림감독원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림에 수습년동안 풀베어 조성해놓은 귀중한 산림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도록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울창한 수림을 잃어 산림리라고 하여도 병해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크므로 미미부류의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야 한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도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사들음이 떨어지면 풀을 들어 노획한 보람이 없게 된다.

산림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갖 심은 나무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대체로 양묘장에서 2~3년씩 키운 울거심은 나무들이 잘 우 환경에 대한 반성이 예민하기때문에 잘 보살펴라하지 못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죽을수 있다. 그러므로 갖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잘 자라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바로세워야 한다.

산림보호관리사업은 전국중적인 사업이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에서는 일꾼들과 대중속에 산림보호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혁명의 만년대적인 혁명적전투와 혁명사업적투쟁에는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수림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일꾼들은 산림부문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귀중한 밑천인 산림을 적극 애호하고 관리하여 건강히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라 한다. 입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 산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기선을 잘 정비하여 사소한 사고에도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풀베기를 할때도 갖 심은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한곡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전 출근길에서였다.

...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 CNC는 자력경제의 본체 ...

문득 어디선가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들》의 선율이 나의 귀전에 울려퍼졌다.

유치원교사들이 대렬을 지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대렬이지만 아직은 손발의 움직임이 각각이어서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하나같이 쟁쟁하고 박력이 있었다.

최첨단들, 너무나 어린 저 천재는 아이들이 그 말의 참뜻을 다 알거나 하는지. 그러나너 저도모르게 생각

이 깊어진다.

어제 날 과학자, 기술자들의 입에만 오르면 최첨단들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내 조국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울리고있지 않는다. 과학연구기관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그 어디서나 최첨단들의 열풍이 일고있다.

이제는 천재는 유치원교사들의 입에서까지 최첨단들의 노래가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오늘날의 이상한 현실은 얼마나 격동적인것인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대거전, 대비약을 이용해가는 내 조국의 창조적 열풍이 그대로 선물이 되자 되어 내 가슴에 평하게

울려든다.

그렇다. 《돌과하라 최첨단들》. 그것은 바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하루빨리 세계를 더디고 올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우리 근대와 인민의 불타는 심장에서 분출하는 전군민적대합창곡이 아니겠는가.

... 과학기술강국을 세우자 행복이 파도쳐온다

유치원교사들의 노래소리는 멀어지고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나의 흥벽을 더 세차게 두드린다.

○ 월 권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종합사령장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송이자 생산사관, 자기들이 강철생산의 첫 공성과 자막공정을 맡은셈이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사이 기관차는 불소울을 피워올리는 우람한 용광로들을 지나쳐 생산의 동용소는 소결직장구역에 들어서더니 조차원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멎어선다.

화차들을 매여버린 기관차는 승물릴새 없이 선철상차장으로 떠난다. 상차장에서는 기중기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자식바가자가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있는 선철부지에 열기 내리었다. 기중기가 용을 쓰자 선철덩어리들이 주런이 매여달린 전자식바가자가 빙 회전하면서 우로 올라가더니 화차우에 이르러 선철덩어리들을 쏟아놓는다. 참으로 가슴포듯한 광경이다.

《이제 중요공장, 기업소로 떠나보내야 할 화차들입니다.》 동행한 일꾼이 자랑하듯 어조로 말한다. 이곳에서 전국

대고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면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동예술훈대원들이다. 이른바 침투 전투현장의 곳곳을 험없이 아가다 진행하는 이들의 예술선동은 매우 격동적이며 오소적이다.

때로는 일판에 뛰어들어 전투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

부강조국건설에 피끓는 청춘을 바치는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랑만의 노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글작품집 《백두여 너를 닮으리》중에서

지난 5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았을때는 경이로운 장군님께서는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발전소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치하하시면서 그들이 창작한 문예작품집들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가운데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조직 5주기년 글작품집도 있다.

본사편집국은 경이로운 장군님께서 체형자태들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사상감정이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글작품집중에서 일부를 전한다.

랑의 부름에 영월한 백두청춘으로

불러주시었다 우리 장군님
백두의 빛, 백두의 정신 심어주시려
백두산처럼 굳게 세워주시려
우리 청년들을 성스러운 혁명전투로
불러주시었다

불뛼는 교정에서 키운 꿈
다시하신 어머니사랑도 그림자
장군님 부름에 청춘의 심장으로 대답하
자고
내 여기 백두로 달려왔나니

누구나 기다리지는 10월의 대추전장에
선군청춘의 이름으로 빛나는
만년대추의 기쁨비를 안고 가자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이르는 전투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원의
고귀한 그 칭호 심장을 꿰게 한다

조선혁명의 첫 세대들처럼
1950년대 리수복영웅처럼
1990년대 김광철, 김영조영웅처럼
청춘의 심장 조국에 바치리라

아, 우리 쌓은 원풍된 인제우에서
기쁨에 넘쳐 계절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 그리며
내 달리고 또 달려리라

김정일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백두산을 안고
백두의 그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영월한 백두청춘으로 빛나게 살리라
평양시려던 6세대 대원이었던
원정철

경애하는 장군님 귀하여

꿈푸른 희망안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로 달려오던 그날
백두산을 수놓은 성스런 돌격대기발앞
에서
내 심장으로 다지던 선서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자욱자욱 힘겨웁던 《고난의 행군》 길에
걸음걸음 땀에 젖던 강령군길에
7년대의 나팔소리처럼
천만심장의 피를 흘려준
아, 그 불멸의 메아리

소중한 이 땅의 모든것을 다 맡긴 부름
총잡은 수호자들의 의무도
창조의 마치를 든 돌격대원들의 의무도
오직 이 하나의 선서에 실려있거니와

더욱 풍요하고 아름다워질 배일 위해
강성대국에서 살 아이들의 고통을 위해
조국안에 다진 목숨같은 선서에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심장을 얹

백두의 봄을 우리는 가꿈다

산은 산마다
골은 골마다
온통 흰눈이 뒤덮이고
새난 눈보라는 대지를 얼구건만
건설장은 들끓기만 한다

봄은 여기서 시작되는가
사시정월 흰눈이 이고 눈이 솟은 백두산
그 자락아래 일떠서는 선군청년발전소
열어붙은 대지를 혼돈드는
건설의 장쾌한 음향소리에서
봄, 봄이 오는 그 소리 듣기에도 완전하다

왕복 30리길을
벌써 세번째로 달렸으며
대비를 등에 진채 땀을 씻는
처녀의 웃음어린 그윽한 저 눈빛...
뒤집새라 연방 함마를 휘두르는
청년의 민음직한 저 모습...

아직은 눈보라치는 계절인데 어찌
이제 옷을 벗어제끼고
피고 달리는 근육진 몸들에
몸게 몸게 아지랑이 피어올리는
땀방울...
땀방울...

아, 파스함을 불러
봄을 불러
더 아름답게 꽃피날 백두대지를 위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청춘도 희망도
아낌없이 다 바쳐가거니

사상도 뜻도 마음도 하나더라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이 하나의 신념을 숨결로 지니고
이 하나의 신념으로 땀을 흘리며
후대앞에 부끄럼없을 승리와 위훈으로
장군님을 받들리라 응위하리라

찬 눈비에 언박을 맡아먹으면서도
《사망회》의 역사를 창조하면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저와 동요를 모른
우리의 힘과 열정, 지향도
장군님 위한 삶에 뿌리를 두었거니와

청춘의 꿈과 희망, 심장을 다 바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우뚝 세울 때
장군님 우리러 터치는 만세속에
조국은 듣게 되리 력사는 기록하리
백두청춘들의 신념의 목소리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정지부장 김삼민

항일빨찌산 청춘들처럼 살고만싶은
소중한 우리 꿈을 백두대지에 펼쳐주신
그 이름도 긍지높은 선군시대 빨찌산청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으로 불러주시
장군님 한분만을 따르고 만드는 길에

그에서 아니라
일일 해도 일을 해도 힘들줄 모르고
바치는것이 너무나 작아만 보여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와
낮에 밤을 이어대며
몸속에 몸을 잠재된 언박도 달게 든것은...

뜨거운 이 마음들에 떠날래
청년 그 이름으로 발전소가 우뚝 설 때
대비에 스며드는 봄기운처럼
진기는 집집에 찾아들리라
창가마다 웃음꽃
봄꽃처럼 곱게 곱게 피우리라

아, 봄날의 눈썹소리마냥
발전기의 동음소리 장쾌히 울릴 때
이 백두대지는 얼마나 밝아질것인가
아름다운 그 선정에 이끌려
봄은 여기서 떠나지 않리
봄은 여기에 영원히 깰터리

정령 가슴마다 넘치는 긍지안고
우리는 왜대한 자랑한다
장군님 키워주신 백두의 청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의 자력으로
아, 우리는 봄을 가꿈다
백두대지의 영월한 봄을 가꿈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장
리금철

총포성 없는

총포성은 울부짖지 않아도
여기는 작렬하는 격전장
우등볼로 밤을 태워 낮과 밤을 이으며
최후로 육박하는 불타는 고지

무쇠팔뚝 휘두르는 기동기운전공
잠시나마 중기압철 놓은적 있던가
흙을 담아 얼음판을 달리는 눈발매들
순간이나마 돌격을 멈춘적 있던가

천길 땅속에서 24시간
기관총의 불을 토하는 착안명수들은
얼어든 머리카락을 풀어 놓여 틀어쥐며
승리로 부르는 원장방송원은

하루세끼 따끈한 식사를 지고
벼랑을 뚫고 내리는 《남강마을 너들들》은
어기영차 힘합쳐 휘둘러 싸우는
땀젖은 지휘관, 대원들은

나 또한 정대와 함마를 틀어쥐고
결사전의 양상에 서있다
뿌리깊은 썩바위를 들춰내며
알길막는 청바위를 까부시며
안다문 입술로 튀고 걸고 거머

보아라
심장을 켜는 얼음장을 헤치며

참마의 메아리

썩—썩—썩—
참마의 메아리
백두의 정신안고
청년전위들의 마음담아
더 새차게 울리라

백두청춘들이 울리는
새난 참마질소리
백두에 울린다
하늘땅 뒤흔든다
썩—썩—썩—

활영북도려단 1세대 랑희성

생각많은 건설장의 밤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 오면
누구도 쉬이 건설장을 뜨지 못하네
병사들이 일떠세운 발전소마다
사람의 자욱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
우리들이 건설하는 발전소건설장을
문득 찾아오시면 아, 찾아오시면
그 생각으로 비어둘수 없는 건설장의 밤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의 하나로 청년전위를 내세우시며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들을 안고계시는
아,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여

소

저우는 하루해도
하나의 소원을 남기며 가고
동트는 새날도
하나의 소원을 안고서 오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숫는 해를 바라보아도
그리움안고 떨쳐온 위훈이
가슴 한껏 부풀게 하거니
그리움안고 새겨갈 새 기적이
가슴 한껏 설레게 하거니

날이 밝고 저우는것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조화라면
아, 심장에 스스로 물노니
우리 가슴 이리도 환희에 젖을것인가

난생처음 눈보라에 손발을 얼릴 때
대동수에 생활가설들이 떠날때 갈 때
비판을 모른 락관의 노래 부르며
영광넉친 승리만을 아로세진
위훈의 원천이 정령 어디 있었던가

눈보라치는 전선길의 모닥불가에서

오늘도 울린다
건설전투장으로 나를 부르는
지휘관의 힘찬 구령소리
—어깨삼! 앞으로 갔!

어

총더라
왜놈치러 나가는 빨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냥
—어깨삼! 앞으로 갔!

격전장에서

언제를 지켜낸 무명의 전사들을
들어라
한점 불꽃으로 사라져도
전대의 돌격로를 열어
불발폭약을 터치고야만
애끓은 청춘의 거대한 폭음을

과연 그 누가
격전의 마당에서 비집혔던가
장군님 틀어쥐신 《백두산》권에서
백두의 투사로 선군의 용사로
쏘면 쏘는대로 날아가고
명중하고 승리하는 부대 백두산부대!

오, 선군!
오로지 선군의 신념으로 불타는
이 나라의 새 세기 청춘들이
장군님따라 백두전장을 누리며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선군승리를 떨쳐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너는 진정 강성대국건설의
최후돌격전의 양장에서
최고사령관의 별동대의 영예
만방에 떨치리라 떨치리라!
평양남도려단 2세대 리철국

어깨우에 무겁게 짊어진 질통에
보폭을 나란히 하여주는 맛달이에
한삼이라도 더 많이
어서 혼합물을 담으라는 제촉소리
삼을 켜 손들을 바쁘게 한다
한삼만 더!...

강성대국건설의
교향곡인듯 장쾌하게 울리는
발전소건설장의 동음소리 더해주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정답게 울리는 창이다
한삼만 더!...

우

우리 일터 건설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말하겠지
하늘아래 첫 동네 친구의 밀떡속에
선군청춘 이름으로 발전소 세우며
장군님 구상을 꽃피워가는
돌격대원 우리모두 쌍둥이같다나

돌격대복을 하나같이 차려입은
몸뚱한 그 모습도 쌍둥이같지만
겉싸게 일을 해제겨가는
일숨씨도 분명히 쌍둥이같고

심

들어보자 동무여
오늘 굴진은 몇m인가
정전이 되고 석수 쏟아진다
물리선전은 과연 없었던가

만약 그 길에 한점의 티 있었다면
가사
백두의
꿈게도 뵈거나 백두의 진달래
물결경입구에 어어쁘게 퍼졌네
연분홍꽃잎속에 꽃구슬 쫓기고
발전소건설장에 꽃향기 풍기네
아, 내 마음의 진달래 백두의 진달래

새 기술혁신으로 골진계획 넘쳐난
우리를 축복하듯 진달래 붉게 타네
발전소건설의 창고안명수들

건설장에 탄원해온 돌격대원 우릴
보고
뒤에서물 소곤소곤 귀속말로 칭찬해요
일썩째도 노래춤도 나무랄데 없으니
강제치러 나쁘다고 그 소문이 자자해요

돌격대 우리 살림 알뜰살뜰 꾸려가니
찾아오는 사람마다 너도나도 칭찬해요

가사

머지않아 완공의 환호속에
동음소리 높이 울릴 발전소의 그 응자는
청춘의 열기에 불하듯만 펼쳐주신
장군님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운
백두청춘들의 소원이 안아온 창조물이
거니

아, 기쁨속에 영월토록 젊어계시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여
강성대국의 무궁한 봄을 위해
부디 건강하시라 길이 행복하시라
강원도려단 4세대 김관준

어

준더라
왜놈치러 나가는 빨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냥
—어깨삼! 앞으로 갔!

어

준더라
왜놈치러 나가는 빨찌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던 구령소리마냥
—어깨삼! 앞으로 갔!

신심놀이 전장으로 떠나는 빨찌산들마냥
어깨총처럼 어깨삼을 하고
위훈으로 불타는 열망을 간직하며
돌격대원 우리는 전투장으로 나가거니

삼이여 너는 놓을수 없는 나의 무기
비록 총대는 아니여도
부강조국건설위업 이룩하는 그 길에서
선군청년전위된 사명감을 무겁게 해주
는 너

삼남은 크지 않아도
산악을 들어내고
만년청춘연제 높이 세워

환

강성대국건설의
교향곡인듯 장쾌하게 울리는
발전소건설장의 동음소리 더해주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정답게 울리는 창이다
한삼만 더!...

아, 그 말속에 간절한 당부자 있다
아버지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드릴
기쁨일친 완공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갈처럼 웃웃이 서있자
믿어달라 동무여
한삼만 더!...

성, 중앙기관대대 김만길

쌍

비판을 모르고 랑만에 넘쳐
노래하는 그 모습도 쌍둥이같다나

어이 다르랴
장군님 품에서 혁명을 배우는 우리거니
백두산기슭에서 첫걸음을 함께 떼고
이후의 낮과 밤도 함께 이어오며
한해 또 한해 함께 나이를 얻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 우리 모두
쌍둥이!
평양남도려단 7세대 김연욱

쌍

명심하자 우리가 뚫는 1m, 1m는
원풍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안고

아, 장군님 가까이로 가는 길일출!
평양남도려단 4세대 립철우

쌍

위훈으로 불러주며 꽃향기 풍기네
아, 내 마음의 진달래 백두의 진달래

백두의 대지에 펼쳐질 불아성
진달래꽃처럼 아름답게 수놓으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완공의 날
장군님 우리러 더 활짝 피어나리
아, 내 마음의 진달래 백두의 진달래
함경북도려단 5세대 현복남

쌍

건설장에 탄원해온 돌격대원 우릴
보고
뒤에서물 소곤소곤 귀속말로 칭찬해요
일썩째도 노래춤도 나무랄데 없으니
강제치러 나쁘다고 그 소문이 자자해요

돌격대 우리 살림 알뜰살뜰 꾸려가니
찾아오는 사람마다 너도나도 칭찬해요

쌍

준마라고 달리며 날려온 붉은기
우리의 머리에 높이 솟았다
얼마나 좋은가 웃으며 헤쳐온
발전소건설의 자랑찬 날들이
우리들의 청춘을 노래하자

쌍

준마라고 달리며 날려온 붉은기
우리의 머리에 높이 솟았다
얼마나 좋은가 웃으며 헤쳐온
발전소건설의 자랑찬 날들이
우리들의 청춘을 노래하자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참관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이 23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사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단장인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23일 미국 침략선 《서먼》호격침기념비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있는 대동강기슭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미제의 만행체첩자인 전쟁로병 최순길, 동평양화학발전소 초급직맹위원장 박명호, 평양철도건설려단 초급직맹위원장 남춘진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6.25에 즈음하여 전세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들을 들씌웠으며 오늘도 전쟁전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야말 복수심에 불타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적사상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파멸적이고 강도적인 전쟁, 야만적인 살륙과 파괴로 일관된 침략전쟁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제살인귀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폭로규탄하였다. 그들은 지금도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미제를 축치는 심정으로 대고 조선투쟁장에서 새로운 천리마 속도, 《희천속도》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으로써 커다란 로력적성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땀이 떨어설때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성토문이 광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산둥성신선대표단 도착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참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남조선당국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민족화해협의회 공개질문장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의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서도 통일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0년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있기에 지난 수년간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에서 전혀 없는 경이적인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1.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리명박은 2008년 2월 집권한 이후 여러 기회에 선행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 선언들을 리명박이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며 퍼피외장부 장관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공언하였다.

2008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은 퍼피외장부 장관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방침을 바꾸는 것은 되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로하

오늘 6.15의 위엄은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대에 의하여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총체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과 전쟁국면에 처해있다.

역적세당은 적반하장적으로 저러하여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느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하고 북남관계파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보수세대의 첩멸피하고 가스로운 책들은 민족과 함께 격분을 금지 못하면서 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문건대 이것이 공동선언에 대한 인조조는 되는가 부정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은 북과 남의 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이고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풍골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북남공동선언에 대해 외면하고 부정하기만 아닐수 없다.

2. 6.15 공동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거부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부정이 아닌가.

리명박은 2008년 3월 1일 《우리 민족끼리》가 어느 누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하는 리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의 리념을 옹호하는 동리의 리념이라는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슬고한 리념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민족에 대한 부정이고 통일에 대한 부정이다. 6.15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말만까지 제쳐내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구실무적추과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하고 민족간의 결별되고 한자과 남조선의 리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

3.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을 운운할 제언이 있는가.

6.15 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사이에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활발하게 이어져왔으며 그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6.15의 흐름을 중단시킨 것은 다름아닌 퍼피외장부 장관이다. 리명박과 그 세당은 집권하자마자 북에 끌려다니는 《대북협상사세》를 바꾸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느니, 《원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

것이야말로 자기당착이고 자기기만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가 어느 누구의 사상과 제도를 옹호하는 리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의 리념을 옹호하는 동리의 리념이라는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슬고한 리념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민족에 대한 부정이고 통일에 대한 부정이다. 6.15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말만까지 제쳐내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구실무적추과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하고 민족간의 결별되고 한자과 남조선의 리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

4. 6.15를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

퍼피외장부 장관은 집권후 《친북과 친미》를 떠들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을 뒤늦게 법민련 남측 본부, 실천련대, 민주로총, 《전교조》를 비롯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리명을 요구하는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초적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특히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탄압의 예봉을 들이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한 가혹수색과 조사, 체포, 처형농움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역적세당은 6.15 공동선언발표 10년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대해서도 남측대표단의 평양행사를 가

려하였다.

북남관계는 대결의 시대로 멀리 후퇴하였다.

이처럼 북남관계를 결판내고도

5.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 날뛰면서 그것이 북남공동선언과 랑립될수 있다고 보는가.

리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기중 목표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북전략》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였다.

리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기중 목표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북전략》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였다.

도한 2008년 11월 미국을 행각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적 목표》라고 지껄여왔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지난 10년간 주적개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는 퍼피외장부의 후안무치한 꾀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사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퍼피외장부 장관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굴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명박 조국통일의 견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요 퍼피외장부 장관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이야말로 회세의 대결판이고 호전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사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퍼피외장부 장관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굴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명박 조국통일의 견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요 퍼피외장부 장관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환영하는 군중집회가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법민련, 법철학원 북측본부 성원들과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한상렬목사가 통일기를 들고 집회장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은 뜨거우 동요의 정을 안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집회에는 안경호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그는 한상렬목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과감한 실천으로 민족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반통일세력을 단죄하고 자주통일의 거대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일념으로 출발한 의로운 장거라고 강조하였다.

통일이 없는 자주도 민주도 평화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애국애족의 의지를 안고 평양에 온 목사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이든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아가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환희를 들끓던 6.15시대와 최약의 전쟁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정세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는 길에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환영하는 군중 집회 진행

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물리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발달하려는 리명박역적세당에게 준엄한 첩추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선 나라는 평화와 거리의 운명을 지켜주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민족수호의 보검이며 통일애국의 기치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군의 기치 밑에 모두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한상렬목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일련 단상 6.15를 살리고 북남공동체들과 함께 통일의 꿈을 나누기 위해 분열의 장벽을 뚫고 평양으로 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내가 입고있는 흰 두루마기는 문익환목사의 부인인 박용길장모가 문목사의 민주와 통일의 뜻을 이라고 나에게 준 것이다.

2003년 8.15추진대평양의 통라도에서 대표연설을 하였다.

오늘 북측동포들을 만난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으로 눈물이 난다.

문목사가 《불법》으로 방북하였던 때로부터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런에 나 자신도 《불법》으로 분단장벽을 뚫고오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의 현실이 비참하기 그

그는 온 겨레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지역을 남김없이 발전하며 난관을 이겨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 남북에 돌아가면 수급과 감옥이 기다리고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그는 일심단결하여 당당하게 강성대국을 향해 전진하였다는 북남공동체들을 감사하드린다

6.15는 곧 화해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 민족은 틀이 되면 무사할 하나이며 반드시 하나가 되어 통일평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기 위하여 힘차고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만세!》 등의 구호를 힘있게 불렀다.



4. 6.15를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

퍼피외장부 장관은 집권후 《친북과 친미》를 떠들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을 뒤늦게 법민련 남측 본부, 실천련대, 민주로총, 《전교조》를 비롯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리명을 요구하는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초적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특히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탄압의 예봉을 들이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한 가혹수색과 조사, 체포, 처형농움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역적세당은 6.15 공동선언발표 10년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대해서도 남측대표단의 평양행사를 가

려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는 퍼피외장부의 후안무치한 꾀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사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퍼피외장부 장관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굴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명박 조국통일의 견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요 퍼피외장부 장관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이야말로 회세의 대결판이고 호전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미련하고 졸렬한 책임회피소동

북남관계를 막선 리명박세당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조리를 쓰고있다.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는 《6.15 공동선언정신을 훼손》하고있다는 《남이 아니라 북》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이보다 앞서 《통일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도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 나타나 저들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해 과거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느니 뭐니 하고 최미운 소리를 쉰면서 《때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였다.》고 떠들어댔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수작들이 아닐수 없다. 과연 남조선퍼피들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무시되고 북남관계가 파란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결코 떠나지 못하며 리명박세당이 리명박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 무슨 《정신승》이니, 《존중》이니, 《노력》이니 하는 것은 북남관계파란의 책임을 감히 우리에게 넘겨워보려는 것으로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보수세당은 《6.15 공동선언정신을 훼손하고있다는 북》이며 저들은 북남선언들을 《존중》했다고 수작원하였는데 정말 그런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집권전부터 《용공적저지》으로 모두 배척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자들이 집권후 어떻게 처신했는가는 보수 《정권》이 출현한 다음날 당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가라는 질문에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실로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보수세당은 행동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전진해온 6.15 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한것은 그들 자신이다. 또 리명박역도가 집권한지 두달만에 《남북관계의 기본정신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초협상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만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로물적으로 부정한 사실은 무슨 수로 감추었는가.

퍼피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최근 특대형사기모략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고있다.

퍼피들은 지금 함선침몰사건을 코에 걸고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고 떠들며대면서 북남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과 국제적인 제재사동, 군사분계선일선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대북시찰》제재, 미제침략군과의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 등 전쟁사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폭언까지 쉰채로 전쟁도발의 흥심을 로물적으로 드러냈다.

이 모든것은 그들이 지금껏 강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최절정이며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사건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군사적충돌과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적인 한 군사적도발사동을 벌리는 것은 위협자들이 전쟁도발전에야만 할수 있는 행위이다.

퍼피들이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패배를 둔것도 가스롭기 그지없다.

그들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인 대화와 협력을 《퍼주기》로, 《북에 끌려다니는 행위》로 뭉뚱그려 《남북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아니라 바로잡았다.》고 대외부장직을 위한 사실을 벌레 있었는가. 사실 보수세당은 북남관계발전을 기대한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일체 중지하고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리면서 어리석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하였다.

겨레의 통일원인을 담고 10여년이나 이어져온 금강산관광이 불행하게 막을 내리고 퍼피합선침몰사건으로 북남관계가 풍지박산의 격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발발직전의 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발전을 거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전쟁사동에 미쳐 날뛰는 리명박세당의 집권하에서는 필연적현상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세당이 북남관계파란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도 오그랑수 쓰고있으니 이 얼마나 철면피한 자들인가.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이야말로 회세의 대결판이고 호전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사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퍼피외장부 장관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굴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명박 조국통일의 견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요 퍼피외장부 장관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이야말로 회세의 대결판이고 호전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

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와 랑립될수 없다.

반공화국대결모략사동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퍼피외장부 장관이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황실수술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파렴치한 도둑짓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6.15의 길이나, 대결과 전쟁, 파국과 분열의 사대굴의 길이나 어느 길을 택하였는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존중, 리명박 조국통일의 견도와 직접 관련된 원칙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요 퍼피외장부 장관이 결코 회피할수 없고 반드시 답변해야 할 민족의 물음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파란시킨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명박이든 이든 민족과 전세계에 공인되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북남공동선언을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리명박이 할 의무가 있다. 시대의 무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역하면 《국민여론》과 《국제사회》를 떠드는 퍼피외장부 내외의

6.15 공동선언발표 10년 기념강연회 진행

6.15 공동선언발표 10년을 즈음하여 새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가 15일 새해인사에서 기념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장준성 새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장이 강연을 하였다.

그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분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판로로 전환되고 자주통일운동의 새 역사가 펼쳐져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거

두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이 집권전부터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배타적민주주의》, 《패쇄적민주주의》로 몰아대면서 공동선언의 역사적의의를 깎아내리고 발악해왔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지난해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결코 틀며 전제없는 반공화국대결사동에 광분한 반역세당이 최근 저들이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북남관계를 전면 파란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평안만 몰두한 호전판이라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설을 들어 치던 미군장군에게 의해 신호순, 심미선 두 어린 녀학생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도 바로 이자의 책임기간에 일어났기라고 문평은 밝혔다.

문평은 특히 북측 《악의 축》으로 걸고드는 등 맹전적이며 대결적인 대조선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한 부서는 세계평화는 물론 조선반도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규탄하였다.

문평은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제 2의 6.25를 몰아오는 위험한 책동

우리 민족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어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침략적인 전쟁도발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매국역적들에 대한 처사는 원한과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평화와 영회통일을 간절히 녀원하여왔다.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것으로 되풀어졌다.

그런데 겨레의 이 간절한 지향과 녀원은 퍼피외장부세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찬사리를 맞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이 보여주다실익역적세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이 땅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피기 위해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제 2의 6.25가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역적세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남조선퍼피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동족대결을 격려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며 나라도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제물로 통째로 섬겨버치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이다.

퍼피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최근 특대형사기모략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고있다.

퍼피들은 지금 함선침몰사건을 코에 걸고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고 떠들며대면서 북남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과 국제적인 제재사동, 군사분계선일선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대북시찰》제재, 미제침략군과의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 등 전쟁사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폭언까지 쉰채로 전쟁도발의 흥심을 로물적으로 드러냈다.

이 모든것은 그들이 지금껏 강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최절정이며 그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사

